

◆ 북미

- 미국 동성커플, 배우자 건강보험 관련 소송에서 승소
- 미국, 보험감독체제 변경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유럽

- Swiss Re, Barclays 생명보험 인수 초읽기
- 영국 운전자, 자동차 보험 보상 범위 제대로 인지 못해

◆ 일본

- 니혼코아손해보험 ‘탄소중립 프로그램’ 발표
- 손보사들 해외여행자보험 미성년자 사망보험금 한도액 인하 확산

◆ 중국

- ‘엄동설한’을 겪고 있는 중국 손해보험시장
- 중국 보험업계, 베이징 올림픽 특수 기대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 동성커플, 배우자 건강보험 관련 소송에서 승소

- o 뉴욕 인권 단체인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이하 NYCLU)는 한 동성 커플이 배우자 건강보험보장과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힘.
- 재판의 당사자는 학교에서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는 Jeanne Kornowicz와 그 배우자인 Joy Higgins로, 그들은 지난 2006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결혼했으며 한 살된 딸을 두고 있음.
- 현재 뉴욕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 o Kornowicz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배우자를 위한 건강보험을 신청하였고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건강보험 제공 회사인 Blue Cross Blue Shield 서부 뉴욕지부 측에서 이를 거부함.
- 이에 따라 NYCLU는 3주전 Blue Cross Blue Shield 서부 뉴욕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에서 Blue Cross Blue Shield 서부 뉴욕지부가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함.
- NYCLU가 지정한 두 가지 원칙은 뉴욕주가 뉴욕주 밖에서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주 인권법이 성별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임.
- o 이번 판결 이후 Blue Cross Blue Shield 서부 뉴욕지부 측은 앞으로 동성 커플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NYCLU의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Blue Cross Blue Shield 서부 뉴욕지부 측이 앞으로 법을 준수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한 커플들을 동일하게 다룰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 이번 판결을 지지함.

(Canada.com 외, 7/28)

□ 미국, 보험감독체제 변경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지난 화요일 미 국회 청문회에서 현재의 미국 보험산업 감독구조가 외국 보험사의 미국시장진출을 저해하며 소비자를 위한 보험사의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보험사가 연방 보험 감독 규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Optional Federal Charter (OFC)의 신설과 관련한 미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 청문회에서 Baltimore생명의 사장인 John Pearson은 이같이 주장함.
- 그는 현재와 같이 보험산업에 대한 연방 감독 규정이 없고 각 주별로 감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외국사의 미국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밖에 없고 보험사가 주별로 상이한 규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혁신이 힘들다고 밝힘.
- 지난 몇 년간 보험산업 내 몇몇 관계자들은 보험산업에 대한 연방감독체제를 신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4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한바 있음.
- 그러나 New Jersey 보험감독관인 Steven Goldman은 미국소비자연맹(CFA)의 자료를 인용하여 보험사들의 불만과는 다르게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보험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반박함.
- CFA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04~2007년 사이 2530억 달러의 세전 이익을 거두어 들였으며, 특히 허리케인 피해가 컸던 2004년과 2005년에도 이익을 기록했음.
- 또한 보험사가 연방감독 규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주 감독당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자 보호 노력이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한 보험산업 애널리스트는 미국 내에서 연방감독규정 신설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이나 관련 법안이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분석함.

(Reuters, 7/30)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Swiss Re, Barclays 생명보험 인수 초읽기

- 세계 제 1의 재보험사인 스위스 리(Swiss Re)는 바클레이스 생명보험(Life-assurance arm of Barclays)과 M&A를 목적으로 협상중이라고 알려짐.
- 스위스 리는 인수자금으로 약 70억 파운드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인수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이르면 수주일 내 인수 완료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올위치 생명보험(Woolwich Life)과 바클레이스가 합병해 만들어진 바클레이스 생명보험은 백여 만명에 이르는 기존고객 관리와 7만명 고객에 대한 연금지급을 제외하고 신사업 진행은 중단한 상황임.
- 바클레이스 그룹은 바클레이스 생명보험을 비핵심 사업부로 평가하고 매각작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신용위기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바클레이스 생명보험의 실제 가치를 두고 양측의 차가 워낙 커서 인수무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음.
- 스위스 리는 바클레이스 생명보험처럼 더 이상 신규고객을 받지 않은 채 기존 고객들의 자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생명보험사들을 적극 인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 작년 스위스 리는 레졸루션(Resolution)을 50억 파운드로 인수하려고 했으나 라이벌 기업인 펄(Pearl)에게 밀려 좌절되었고 이후 취리히 파이낸셜 서비스(Zurich Financial Services)로부터 40억 파운드 상당의 좀비펀드* 매수에 성공함.

* 좀비펀드(zombie fund):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등의 신사업은 하지 않은 채 기존고객들의 투자 수익으로만 운용되는 폐쇄형 펀드(close-fund)의 일종

(The Sunday Times, 7/28)

□ 영국 운전자, 자동차 보험 보상 범위 제대로 인지 못해

- 종합 파이낸스 기업인 그린비 닷컴(greenbee.com)은 7월 29일 자동차 보험시장 첫 진출을 앞두고 1,448명 영국 성인 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영국 운전자 열명 중 네명은 작은 차사고의 경우 무사고 증명(NCD, No Claims Discount) 혜택 상실을 염려하여 자비로 수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런던시민 16%는 차사고만 나면 무조건 보험 청구를 할 것이라고 대답해 대조를 보임.
- 운전자의 10%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특히 3분의 1이 넘는 운전자들은 본인의 차가 도난당하거나 고장이 나면 언제나 대차(courtesy car)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22%의 운전자만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영국 운전자들은 자동차 여행시 게임기, CD 등 평균 327파운드 상당의 물건들 차안에 싣고 있으며 1,000파운드 이상이라고 대답한 운전자도 5%에 이르지만, 자동차 보험의 보상한도가 250파운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가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줌.
- 이번 자동차 보험 시장 조사가 영국 운전자들이 실제 본인이 혜택받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그린비 닷컴의 James Furse 총괄 책임자는 총평함.
- 자동차 보험에 대한 운전자들의 기대와 실제 보상 범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며 운전자들은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실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뜻하지 않은 본인 부담을 지게 됨.
- 자동차 보험 고객들은 보험사로부터 훌륭한 가치를 지닌 상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만큼, 자동차 보험사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러한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James Furse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를 요약함.

(Easier Finance, 7/30)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니혼코아손해보험 ‘탄소중립 프로그램’ 발표

- 니혼코아(日本興亜)손해보험은 7월 28일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소를 위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을 2012년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 탄소중립프로그램은 개인, 가정, 기업 등이 생활 속 에너지 소비행위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zero(0)'로 만들자는 내용의 범국민 자발적 참여 실천운동임.
- 니혼코아는 빌딩 내 절전 운동 등의 에너지 전략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량 감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시장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한다는 계획임.
- 최근 Google 등 세계 주요 대기업들은 실질적 이산화탄소 배출 '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도입하지 않고 있음.
- 니혼코아는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이 임직원 출퇴근이나 출장 등을 포함하여 회사 전체적으로 약 5만 5000톤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음.
- 이 중 15%에 대해서는 자사의 빌딩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기정화 장치나 조명을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바꾸거나 사내에서 사용하는 인쇄물의 감축 및 인터넷을 이용한 회의 시스템의 활용하여 출장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투자액은 약 300억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시장 등에서 해결할 계획이며, 배출 거래시장에 소요되는 투자액은 약 2억 엔이지만 구체적인 거래방법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
- 니혼코아손해보험은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7/29)

□ 손보사들 해외여행자보험 미성년자 사망보험금 한도액 인하 확산

- 최근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여행자보험의 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보험 보험금 한도 인하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음.
 - 도쿄해상니치도(東京海上日動)화재보험과 손해보험재팬은 지난 7월부터 차례로 15세미만 미성년자의 사망보험금 한도를 1000만엔으로 인하하였으며, 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도 9월말 한도액 인하를 추진 중임.
 - 일본 보험업계에서는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유가족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의 기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 미성년자의 사망보험금 한도액 인하는 금융심의회(수상 자문기관)가 논의 끝에 권고한 사항임.
 - 금융심의회에서는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없는 아이에게 고액의 사망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는 것은 보험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고액의 보험금 사기를 노린 사건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음.
 -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금융심의회 권고를 받아들여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금 한도액을 1000만엔으로 하는 자율규제를 제정하였으며 각사가 한도액과 계약 인수 기준을 정한 사내규칙을 정비하기 시작함.
- 도쿄해상니치도와 손해보험재팬은 인터넷이나 공항에 설치된 보험계약 자동판매기 등 대리점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약할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의 한도액을 우선 인하했음.
 - 종전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5000만엔, '질병 사망보험금'은 3000만엔이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1000만엔으로 변경함.
 - 해외여행자보험에서 미성년자의 사망보험금 한도액 인하를 우선 실시한 것은 비대면채널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며, 향후 상해보험이나 의료보험 등 제3보험 상품의 일부에서도 한도액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 7/27)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엄동설한'을 겪고 있는 중국 손해보험시장

- 중국 손해보험 시장은 최근 수입보험료 감소, 지급보험금 증가, 자산운용 시장 침체 등 이른바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음.
 - 수 년 동안 손보사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외형성장 위주의 전략을 구사함.
 - 이 과정에서 투자확대와 수수료 인상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트가 상승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설해, 지진, 홍수 등이 잇따르면서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이 급격히 하락하게 됨.
- 이러한 손보시장의 엄동설한은 이미 작년부터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함.
 - 작년 5월 이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금년 1~5월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까지 급락함.
 - 또한 대형재난으로 지급보험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은 데다가 중국 주식시장마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들면서 자산운용 수익율이 형편없이 나빠져 지급보험금 과다로 인한 손실을 자산운용수익으로 보전해 왔던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실제로 지난해 인민보험(人保產險)과 평안보험(平安產險)이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따따보험(大地保險)의 경우 금년 6.30(월)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감위로부터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浙江), 장시(江西) 등지의 자동차보험 업무 정지명령을 받는 수모를 당함.
 - 참고로 현 중국 손보시장은 인민보험, 태평양보험(太保產險), 평안보험 등 5개 주요 보험사가 전체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상해금융보, 7/25)

□ 중국 보험업계, 베이징 올림픽 특수 기대

- 베이징(北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올림픽보험’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업계에서는 올림픽 개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인 보험시장 규모가 수익 위안에 이름으로써 하반기 보험회사의 수지 개선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경우 대회 조직위가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이 3,000만 달러에 이르렀던 것을 감안하면, 금년 베이징 올림픽의 보험료 규모는 아테네 올림픽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국내외 보험회사는 책임보험, 재산보험, 선수의료보험, 경기취소보험 등은 물론 각종 올림픽 건축물 보험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
- <베이징올림픽 행동계획>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사전준비 및 올림픽이 거행되는 기간 동안 보장보험금 기준 수천억 위안 보험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수입보험료가 수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수익 위안이라는 수치는 스포츠와 직접 관련된 보험수요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스포츠 외에 올림픽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험수요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최근 수개월 동안 베이징, 상하이 지역의 의외상해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것은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증권시보, 7/29)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7.25(금)	08.8.1(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77	5.72	-0.05
	美 10년국채	4.03	4.11	3.95	-0.16
	英 10년국채	4.51	4.97	4.81	-0.16
	日 10년국채	1.51	1.58	1.53	-0.05
주가	韓 KOSPI	1,897.13	1,597.93	1,573.77	-1.5%
	韓 KOSDAQ	704.23	543.6	535.76	-1.4%
	美 DJIA	13,264.82	11,370.69	11,326.32	-0.4%
	美 Nasdaq	2,652.28	2,310.53	2,310.96	0.0%
	英 FTSE100	6,456.90	5,352.60	5,354.70	0.0%
	獨 DAX30	8,067.32	6,436.71	6,396.46	-0.6%
	佛 CAC40	5,614.08	4,377.18	4,314.34	-1.4%
	日 Nikkei225	15,307.78	13,334.76	13,094.59	-1.8%
	中 상해종합	5,261.56	2,865.10	2,801.82	-2.2%
	대만 가권	8,506.28	7,233.62	7,002.54	-3.2%
환율	홍콩 항셍	27,812.65	22,740.71	22,862.60	0.5%
	원/달러	938.2	1,009.00	1,014.60	5.60
	원/100엔	833.33	934.74	938.01	3.27
	엔/달러	112.58	107.83	107.56	-0.27
	달러/유로	1.4722	1.5675	1.5558	-0.01
	위안/달러	7.3041	6.8180	6.8315	0.01